

1.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선뜻 확신이 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문득 찾아오는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런 내가 감히 예수님께 나아가도 될까?' '내 삶이 조금은 더 나아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거장들을 떠올리면 그런 마음은 더욱 커집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모세의 결단, 다윗의 담대함은 너무나 거대해 보이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앞에 서면 나의 믿음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너무 부족한데, 정말 나아갈 자격이 있을까?' 복음은 이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기에 나아오는 것이냐, 아니면 자격 없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 나아오는 것이냐?"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할 자격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 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참 이상한 고백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모습이야말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지 않을까요? 믿고 싶지만, 여전히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지만, 불쑥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그 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한 믿음까지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다 정리된 후에 기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심이 사라진 후에 말씀을 붙들려 하지 마십시오. 확신이 생긴 후에 하나님께 삶을 맡기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품은

채, 지금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하나님께 증명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내 믿음의 크기’에 머물러 있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정작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보다 내 믿음의 상태 자체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 믿음이 충분한가를 조바심 내며 들여다보느라, 정작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나는 보통 어떤 모습일 때 ‘믿음이 있다’고 느끼나요? 반대로,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예, 어떤 상황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때, 기도가 잘 될때, 문제가 해결될 때, 다른 사람보다 나아보일때 등...)

→ _____

-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믿음과 나의 믿음을 비교하게 될 때는 언제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놓지 않는 손이다”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_____

- ‘지금 내 삶에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영역은 어디인가요?

→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을 증명하려 애쓰며 스스로를 비교하고 의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이 충분해야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흔들리지 않아야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해지기보다, 괜찮은 척하고 단단한 척하며 주님 앞에 서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압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확신이 없을 때도, 기도가 막힐 때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번 한 주, 믿음을 더 잘 가지려 애쓰기보다 주님께 더 솔직해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족함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